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연구*

장명림¹⁾

이재연²⁾

김영옥³⁾

안동현⁴⁾

박수연⁵⁾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육아와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국가·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설정하고, 그 가치와 목적에 비추어 현재 도달한 상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육아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유아교육·보육 발전은 물론 부모의 양육과 아동의 복지 측면을 포함하는 육아지표를 선정하여 기초지표 6개,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 58개, 자녀양육 및 영유아복지 분야 지표 46개 등 110개의 지표를 개발하여 선정하였다. 이번 개발된 지표는 정부(중앙/지방)입안자들과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나라 육아 실태와 질적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육아지표,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 자녀양육 및 영유아복지분야 지표

* 이 글은 장명림·이재연·김영옥·안동현 외(2007),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중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1)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 2)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전공 교수
- 3) 전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4) 한양대학교 신경정신과 교수
- 5)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육아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육아 및 육아정책과 관련된 제반 측면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 변화 추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이 취학전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은 아직 분명하게 제시되고 않고 있다. 특히, 육아지원 정책은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성과나 향후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육아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의 육아지표의 개발과 주기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육아지표는 육아지원 체제 및 육아지원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비추어 현재 우리의 육아는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즉, 육아 정책과 관련된 핵심적인 양상을 기술해 주고, 육아지원 체제의 현상과 결과를 평가하며, 육아정책 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세계 선진국들은 인적자원 조사 체계를 갖추고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국가 인적자원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국제기구들도 교육 및 유아교육·보육 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해 각국의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주요 지표를 생산하는 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 OECD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발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UNESCO는 1990년도 이후 EFA(Education for All)사업의 추진 및 이 사업의 평가와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유아교육·보육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UNICEF도 1992년부터 유아보호와 발달에 관한 지표 지침을 개발·적용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핵심보고서인 Report Card(No. 7)의 주제로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를 다루면서 아동복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의 유아교육·보육 수준을 점검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지표 및 지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선진 외국에서는 취학전 육아와 아동의 권리·복지,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관련한 주요 분야의 육아 지표를 생산·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육아 관련 지표 연구와 자료에는 ‘한국의 교육지표(한국교육개발원, 1997)’, ‘한국 사회의 교육복지지표 개발(한국교육개발원, 2006)’, 한국의 교육·인적자원 지표(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한국의 아동지표(한국아동권리학회, 2001)’, ‘아동권리지표 개발 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한국의 아동지표(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6), ‘유아교육 지표 개발(한국교육개발원, 2001)’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지표를 일부분만을 포함하거나, 유아교육과 보육에 중점을 둔 경우에도 지표와 산식을 제시하였을 뿐, 지표값 산출 및 결과 분석의 정책적인 활용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육아 관련 연구 및 지표들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이 집중되고,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제도권하의 유아교육·보육(육아지원기관 중심)에 초점을 두거나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지표들이다. 그러나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을 진단하는 지표는 전무하므로, 우리나라 부모들의 바람직한 양육을 적정화하기 위한 양육지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보육 발전은 물론 부모의 양육과 아동의 복지 측면을 포함하는 육아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육아와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국가·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설정하고, 그 가치와 목적에 비추어 현재 도달한 상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육아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정부(중앙/지방) 정책입안자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육아정책을 평가하거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데, 또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나라 육아 실태와 질적 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한국의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표, 자녀양육 및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육아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육아지표를 개발 방향 및 기준을 설정하여 육아지표 항목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한국의 육아지표 지표를 선정하였다.

3. 연구 방법

한국의 육아지표를 선정하고 확정하기 위해 문헌 및 선행 연구 분석, 육아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 설문조사, 지표의 자료원 수집 조사의 방법이 이루어졌다.

첫째,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 부모양육 분야 지표, 아동 권리 및 아동 복지 분야 지표 등 세 분야의 개발 방향, 개념 정의, 지표 영역 및 항목 참고를 위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한국의 육아지표 검토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셋째, 한국의 육아지표(안)의 항목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육아정책개발센터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관련 학회(유아교육·보육, 아동 관련 14개 학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5~7명씩 추천을 받아 조사대상을 확보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육아지표의 개념

지표는 일반적으로 규범적인 성격과 기술적인 성격을 지닌다. 우선 지표를 규범적으로 접근하면 합의된 목표나 기준을 전제하고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 준다. 사회지표의 창시자라 불리는 바우어(Bauer)는 사회 지표를 “우리 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 통계 계열 및 다른 형태의 모든 준거”라고 정의하였다(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4). 이후 다른 지표 연구가들도 규범적 기준에 따라 현재의 상황이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이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지표를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특별한 규범의 합의 없이도 관심 분야의 현황을 드러내주는 것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비더만(Bideman, 1966)은 사회 지표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의 조건들을 제시하는 계량적 자료’로 보았다. 또한 오우크스(Oakes, 1981)는 교육지표를 ‘교육체제의 성취 혹은 양태를 나타내는 통계치’로 정의하였다(강무섭, 1988에서 재인용). 강

무섭 등(1988)는 교육지표를 ‘교육체제가 성취한 결과와 관련된 교육 체제의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 체제의 발전 정도와 구조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통계치’로 정의한 바 있다. 이렇듯 지표는 그 활용 목적에 따라 규범적으로 접근할 수도,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로 진보와 퇴보,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에 대한 의미를 제시해 주는 ‘가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현상만을 나타내 주는 통계치와는 다르다. 이러한 지표의 특성 때문에 지표가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무엇이 옳고 좋은 것인가에 대한 기준 또는 가치 판단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즉, 지표는 지표의 목적, 기준 또는 가치에 부합하여야 한다(나정·장명립, 2001).

한국의 육아지표는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술적인 면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향후 이상적인 육아 발전 방향이나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일 수 있으나, 그 중 일부는 지표에서 제시하는 절대적 수치 그 자체가 정책적 고려의 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지표 역시 규범적, 기술적인 두 가지 성격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육아지표의 범주에 기존의 유아교육·보육 분야외에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권리 및 복지 분야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이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바람직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 양육에 대한 분야 또한 선도적으로 포괄하고자 한다.

잠정적으로 한국의 육아지표를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을 평가할 수 있고, 자녀양육 및 영유아의 권리·복지 현황과 변화를 알 수 있게 해주며, 바람직한 유아교육·보육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련의 의미있는 통계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국내외 육아지표 개발 현황

가. 유아교육·보육지표

교육지표 개발 및 주기적 교육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김영화·김홍주·한승희, 1997), 한국사회의 교육복지지표 개발(한국교육개발원, 2006), 유아교육 지표 개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1), 한국아동보육사업의 경제적 규모 평가를 위한 지표(이승희 외, 2005) 등 교육 분야의 지표 개발에 있어서는 대체로 교육체제 접근 모형을 적용하여 지표의 체계 및 구성 요소를 선정하고 세부 지표를 개발·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의 투입/기회, 교육의 과정, 교육의 결과/효과를 주요 차원으로 선정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및 발전 가치를 지향하는 성격의 영역과 항목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단, 매우 포괄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관계로 지표의 양이 매우 방대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포괄적인 지표 중 매우 핵심적인 정책지표를 추가로 선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대부분의 교육지표 연구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양적 현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뿐만 아니라 질적인 분석이 가능한 지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표는 세부 지표의 정의와 산식, 자료원, 그리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예상 질문 및 응답지까지 제시한 것도 있다. 그러나, 실제 지표값을 산출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개발된 지표와 자료 수집 방식에 따른 지표값 산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세계 여러 국가들은 유아교육·보육의 발전과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 지표를 개발·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정책의 발전 여부를 평가, 검토하고 사회적 인식과 지지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이 지속적인지를 파악하고, 자국내의 발전이 아닌, 국제 비교를 통한 국제적 수준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나. 부모양육 지표

부모양육 지표 관련 직접적인 선행 연구나 자료가 없어 부모양육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정의와 관련문헌 자료 및 유관 지침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양육을 평가하는 것은 주로 아동 학대 및 방임과 관련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평가, 입양, 이혼 등 법적인 판결을 위한 부모양육의 적정성 및 부모의 양육능력평가가 주된 것이었다. 더욱이 아직 국내에서는 체계화된 평가방법이나 지표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몇몇 아동 혹은 여성, 가정 관련 지표들에 양육과 관련된 평가지표가 포함되기는 하나, 이 경우 대부분 육아지원 기관에 대한 지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들의 바람직한 양육(competent parenting)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가족 수, 자녀 수, 육아지원 현황 등과 같은 구조적인 영역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내 양육의 적정화를 정량화하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다. 아동권리·복지 지표

최근 들어, UNICEF의 아동복지 지표, 미국 2007 FCD-CWI Report(Kenneth, C. Land, 2007)등 외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아동지표(한국아동권리학회, 2001), 한국의 아동지표(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한국의 아동권리지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등을 살펴보면, 아동의 보호과 권리 및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관심을 가지고 지표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즉, 국제적인 동향에 발맞추어 교육복지, 아동지표 등에서 영유아의 건강, 안전, 복지 등이 포함된 지표가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가들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각 국가내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자 복지(well-being)에 관련된 지표와 지수 개발이 활발하다.

아동의 복지에 대한 최근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취학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본 육아지표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표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아동복지 및 아동권리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취학전 연령에 해당하는 지표만을 추출하는 것이 적합하다. 특히, 국내 선행연구들의 경우, 일회성으로 추진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지표값 및 지표 데이터의 산출과 축적이 미흡하다. 이에 지속적인 지표 데이터의 수합·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30년간 수합해 온 결과, CWI 연구를 통해 30년간의 미국 청소년들의 변화 상황 및 특징을 분석해 낼 수 있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부모양육 지표에서 건강관리 및 기본적인 보호 항목의 지표는 아동권리·복지지표의 건강 항목 지표와 중복이 되는 관계로, 최종적인 지표 선정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절차

1. 한국의 육아지표의 특성 및 개발 방향

가. 한국의 육아지표의 특성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한국의 육아지표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출생부터 취학전까지의 양육과 유아교육·보육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국가 육아정책의 중심인 기관 중심의 유아교육·보육 분야를 기본으로 하되,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복지 지표를 포괄한다. 또한, 부모의 자녀 양육지표를 적정화하기 위한 지표를 선도적으로 포함한다. 셋째, 일회성 지표 개발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 육아정책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와 방안을 제시하여 개발된 지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한 선행연구 및 관련 지표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지표의 분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육아지표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제도권하의 유아교육·보육 관련 지표이다. 이는 주로 공공 기관중심(구조적 영역)의 육아지원을 반영한다. 둘째, 부모의 바람직한 자녀양육 관련 지표이다. 셋째, 영유아의 권리·복지 관련 지표이다.

나. 한국의 육아지표의 개발 방향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육아정책과의 맥락을 고려하여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기구에서 개발·사용하는 지표는 목표로한 정책을 확인, 점점 시계열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육아지표 역시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 정립, 추진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교육과 보육지표를 종합적·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존의 지표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분리하여 개발되어온 경향이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지표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통합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육아 및 육아지원 정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취학전 영유아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포함한다. 최근 국제기구들은 육아지표 개발 및 이 지표에 근거한 정책 모니터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간에 상호 육아 지원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육아 지표에서도 가능한 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포함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규범적 성격이 강한 지표를 선정하되, 기술적인 성격의 지표도 포함한다.

다. 향후 이상적인 육아 발전 방향이나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일 수 있으나, 일부는 지표에서 제시하는 절대적 수치 그 자체가 정책적 고려의 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⁶⁾.

여섯째, 양적인 지표외에도 수요자의 인식, 만족도 및 요구를 포함하는 질적인 지표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지표를 개발·활용하는 목적은 주기적으로 해당 분야의 발전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관계자(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 질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질적 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현황 및 통계 조사 항목과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일곱째, 가용한 통계 자료를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지표라고 하더라도 지표값을 산출할 수 없으면 지표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이에 기존에 있는 각종 통계 자료를 충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여덟째, 핵심지표 선정으로 지표 개발 및 활용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한다. 주어진 범주내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국내외 지표를 검토하되, 최종적으로는 보다 핵심적인 지표를 선정·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1차적으로는 분야별 지표 풀(pool)을 제시하고, 2차적으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제시한다.

2. 한국의 육아지표(안) 개발

원내외 연구팀 협의회→원내토론회→육아지표 1차안 추출(378개 지표)→전문가 자문회의(200개 내외 지표)→연구팀 협의회→육아지표(안)(150개 지표)을 개발하였다. 육아지표 1차안은 유아교육·보육 분야, 부모양육 분야, 아동권리·복지 분야 지표로 구분하였으나, 문헌 추가 분석 및 협의회를 통해 수정·보완한 결과(부모양육 지표와 아동복지·권리 지표가 상당부분 중복됨), 2개 분야(유아교육·보육 지표, 부모양육 및 영유아복지 지표)로 구분하고 총 150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6) 지표는 일반적으로 규범적인 성격과 기술적인 성격을 지님. 지표를 규범적으로 접근하면, 합의된 목표나 기준을 전제하고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 주며,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특별한 규범의 합의 없이도 관심 분야의 현황을 드러내주는 성격을 지님.

3. 한국의 육아지표(안) 항목 적합성 조사

유아교육, 보육 관련 학회 추천 8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육아지표 1차 항목에 대한 적합성 검토 조사를 실시하였다. 육아지표 1차 항목은 기초지표 8개(표 1 참조), 유아교육·보육분야 77개(표 2 참조), 자녀양육 및 영유아복지 분야 65개(표 3 참조), 총 150개 지표이다.

각 항목에 대하여 매우 적합(4), 비교적 적합(3), 부적합(2), 매우 부적합(1)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핵심지표 추출을 위해서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10개, 부모양육 및 영유아복지 분야에서 10개를 선정토록 하였다.

<표 1> 기초 지표

항목	지표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순위
영유아 인구 및 양육현황 3.48	1. 합계출산율	3.69	.67	
	2. 0-5세 영유아 인구 비율	3.49	.68	
	3. 연령별 영유아수	3.77	.48	
	4. 성별 영유아수	3.41	.73	
	5. 지역별 영유아수	3.41	.69	
	6. 장애영유아 인구 비율	3.49	.62	
	7. 가족형태	3.27	.68	
	8. 영유아의 양육형태	3.31	.65	

<표 2>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

항목	지표	조사 결과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²⁾	핵심지표(순위) ³⁾
기관현황 3.28	1. 유치원·보육시설 취원율	3.82	.53	1	73.1(1) 19.2(17)
	2. 유치원·보육시설 설립유형별 기관 비율	3.45	.73	24	
	3. 유치원·보육시설 중 법인기관 비율	2.78	.80	76	
	4. 국가수준의 기관평가(인증) 수입 기관 비율	3.28	.79	46	
	5. 종일반 운영 기관 비율(유)	3.28	.62	47	
	6. 종일반 운영 형태(유)	3.05	.74	68	
교직원 및 종사자 3.28	7. 교직원의 연령별 구성 비율	3.10	.78	64	10.3(30)
	8. 교직원의 성별 구성 비율	2.78	.77	77	
	9. 교직원의 학력별 구성 비율	3.26	.73	51	

(표 2 계속)

항목	지표	조사 결과				
		평균 ¹⁾	표준 편차	순위 ²⁾	핵심 지표 (순위) ³⁾	
	10. 교직원의 자격별 구성 비율	3.51	.64	16	16.7(20)	
	11. 교사의 경력별 구성 비율	3.26	.78	52		
	12. 원장(시설장) 자격증 소지 비율	3.41	.76	30	10.3(31)	
	13. 교사 자격증 소지 비율	3.43	.77	26	10.3(32)	
	14. 교사의 재직연수	3.12	.66	62		
	15. 교사 1인당 영유아수	3.69	.63	4	61.5(2)	
	16. 교사의 연간 근무일수	3.10	.71	65		
	17. 교사의 1일 근무시간	3.33	.71	39	10.3(33)	
	18. 최저 임금 대비 교사의 급여 수준	3.59	.75	8	38.5(6)	
	19.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관 비율	3.04	.81	70		
	20. 교사 건강검진 실시 기관 비율	3.27	.70	50		
	21. 교직원 보험 가입 기관 비율	3.37	.63	37		
	22. 퇴직금 지급 기관 비율	3.28	.70	48		
	물리적 환경 3.28	23. 영유아 1인당 교사 면적	3.42	.67	27	14.1(21)
		24. 영유아 1인당 교실 면적	3.72	.56	2	41.0(4)
		25. 실외 놀이터 보유 기관 비율	3.47	.66	21	14.1(22)
		26. 실내 흥미영역 구성 기관 비율	3.23	.75	54	
		27. 교육용 기자재 보급률	3.13	.73	60	
		28. 시·도별 교구·설비 기준 충족 기관 비율(유)	3.00	.85	72	
		29. 영유아를 위한 휴식 공간 보유 기관 비율	3.01	.76	71	
	교육·보육과정 3.28	30. 국가 수준의 교육·보육과정 활용 기관 비율	3.33	.73	40	28.2(11)
		31. 교육·보육계획안 작성 기관 비율	3.50	.60	19	20.5(15)
32. 교육·보육과정 운영 자체평가 실시 기관 비율		3.38	.74	36	12.8(25)	
33.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관 비율		3.05	.70	69		
34.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연간 관리·감독 횟수		3.12	.74	63	20.5(16)	
35. 장애영유아 통합 교육·보육 실시 기관 비율	3.29	.81	44	12.8(26)		
건강·안전 3.41	36. 연간 시설·설비 안전점검 횟수	3.62	.61	7	29.5(10)	
	37. 연간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 횟수	3.42	.67	28	11.5(27)	
	38. 연간 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횟수	3.46	.64	23		
	39. 연간 안전사고 발생 건수	3.41	.65	31	21.8(14)	
	40.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기관 비율	3.47	.60	22	11.5(28)	
	41.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기관 비율	3.40	.59	32		
	42. 유자격자에 의한 급식관리 기관 비율	3.31	.74	42		
43. 계획적인 간식 제공 기관 비율	3.21	.69	56			
부모교육 3.22	44. 부모교육참여 실시 기관 비율 및 유형	3.38	.63	34	14.1(23)	
	45. 부모교육 참여 부모 비율	3.14	.64	59		
	46. 운영위원회 구성 기관 비율	3.13	.84	61		

(표 2 계속)

항목	지표	조사 결과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²⁾	핵심지표(순위) ³⁾		
교육·보육의 효과	영유아에 대한 효과 3.38	47. 영유아의 신체 발달 정도	3.51	.64	17	10.3(34)	
		48. 영유아의 언어 발달 정도	3.49	.58	20		
		49. 영유아의 인지 발달 정도	3.45	.62	25		
		50. 영유아의 정서 발달 정도	3.51	.66	18		
		51.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 정도	3.59	.59	9		
		52. 유치원·보육시설 경험 유아의 초등학교 성취도	2.88	.85	75		
		53. 유치원·보육시설 경험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도	3.26	.78	53		19.2(18)
	교직원에 대한 효과 3.56	54. 교사의 근무 만족도	3.55	.70	13	25.6(12)	
		55. 교사의 전문성 향상 정도	3.56	.66	10	17.9(19)	
	가정에 대한 효과 3.34	가정에 대한 효과 3.23	56. 운영일수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2.94	.81	74	37.2(7)
			57. 운영시간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3.08	.75	66	
			58. 유아교육·보육과정 운영 대한 부모의 만족도	3.56	.59	11	
			59. 교사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3.37	.63	38	
60. 기관장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3.21	.65	57		
61. 육아비용 지원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3.23	.82	55		
사회·일반 국민에 대한 효과 3.33	사회·일반 국민에 대한 효과 3.33	62. 0-5세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	.353	.72	15	42.3(3)	
		63. 일반국민의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인식	3.31	.73	43	24.4(13)	
		64. 일반국민의 유아·보육교사에 대한 인식	3.15	.76	58		
국가재정 투자 및 유아교육·보육 비용 3.41	국가재정 투자 및 유아교육·보육 비용 3.41	65. 중앙정부 교육 예산 대비 유아교육 예산 비율(유)	3.67	.70	5	41.0(5)	
		66.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교육 예산 대비 유아교육 예산 비율(유)	3.56	.73	12	14.1(24)	
		67.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보육 예산	3.55	.71	14		
		68.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3.64	.69	6	32.1(9)	
		69. 유아교육·보육 관련 연구·개발비	3.29	.72	45		
		70. 영유아 1인당 유아교육·보육 예산	3.72	.64	3	35.9(8)	
		71. 무상교육·보육비 수혜 영유아 비율	3.42	.71	29		
		72. 차등교육·보육비 수혜 영유아 비율	3.28	.74	49		
		73. 가정의 연간 영유아 1인당 유아교육·보육비 지출액	3.38	.84	35	11.5(29)	
		74. 가구소득 대비 연간 유아교육·보육비 지출 비율	3.40	.73	33		
		75. 유아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모 부담 비율	3.33	.73	41		
		76. 영유아 1인당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	3.00	.87	73		
		77. 가구소득 중 영유아 1인당 연간 사교육비 지출 비율	3.06	.77	67		

<표 3> 자녀양육 및 영유아복지 분야 지표

항목	지표	조사 결과				
		평균 ¹⁾	표준 편차	순위 ²⁾	핵심 지표 (순위) ³⁾	
기본현황 3.26	1. 저체중아 출생률	3.08	.72	56	38.5(4)	
	2. 영유아 신체 충실 지수	3.54	.57	13		
	3. 과체중 영유아 비율	2.90	.64	62		
	4. 장애 영유아 출현율	3.45	.64	24		
	5. 영유아 사망률	3.36	.68	40		
	6. 영유아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율	3.24	.73	48		
수입 및 경제 관리 2.82	7. 월평균 가구수입	3.40	.69	32	47.4(1)	
	8. 가계예산편성 여부	2.64	.72	63		
	9. 저축여부	2.62	.65	65		
	10. 소비행태	2.63	.77	64		
건강 관리 및 보호 3.41	모자보건 3.60	11. 모유수유율	3.60	.65	6	30.8(11)
		12. 영유아 예방접종률	3.65	.51	4	29.5(12)
		13. 영유아 정기검진율	3.54	.57	14	21.8(20)
	음식 3.35	14. 균형적인 영양의 식사제공	3.67	.60	2	46.2(2)
		15. 매일 신선한 과일 제공	2.92	.70	61	
		16. 식자재의 청결한 관리 및 보관	3.47	.62	22	
	주거 3.38	17. 주방기구의 청결한 관리	3.49	.60	20	
		18. 주거에 필요한 가구·설비 구비	3.08	.64	57	
		19. 전기안전 관리	3.42	.61	29	
		20. 약품 및 유해물질의 안전한 보관	3.54	.55	15	
	의복 3.06	21. 계절에 맞는 의복 제공	2.97	.84	59	
		22. 의복 청결 관리	3.14	.77	52	
	개인위생 3.56	23. 영유아의 신체 청결 관리	3.49	.62	21	23.1(16)
24. 영유아의 치아 관리		3.63	.51	5	10.3(37)	
질병 및 의료이용 3.45	25. 건강보험 보유 영유아 비율	3.45	.60	25	19.2(23)	
	26. 영유아 유병률	3.51	.60	18	19.2(24)	
	27. 영유아 의료이용 총족률	3.40	.73	33	11.5(34)	
교육 및 생활 지도 3.30	교육 3.45	28. 가정의 교육적인 놀이감 보유 정도	3.12	.72	54	38.5(5)
		29. 정규기관 등록률	3.46	.72	23	
		30. 자녀지도 교사와의 의사소통 여부	3.34	.64	43	
		31. 영유아용 도서 보유 정도	3.14	.62	53	
		32.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횟수	3.23	.66	49	
		33. 자녀와의 놀이 시간	3.55	.66	12	
		34. 자녀와의 현장 경험, 문화체험활동 횟수	3.24	.67	47	
		35. 식습관 지도	3.51	.62	19	
	생활 지도	36. 안전 지도	3.59	.59	7	24.4(14)

(표 3 계속)

항목	지표	조사 결과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²⁾	핵심지표(순위) ³⁾	
3.45	37. 위생 지도	3.55	.53	9		
	38. 영유아의 발달 및 심리 이해 정도	3.54	.66	16	32.1(9)	
	39. 적절한 훈육방법	3.33	.71	44	23.1(17)	
	40. 양육문제 발생시 전문적 자원 활용능력	3.18	.72	50	11.5(35)	
부부관계 3.33	41. 부부간의 긍정적 관계	3.37	.67	36	15.4(27)	
	42. 결혼만족도	3.29	.67	46	14.1(30)	
부모- 자녀 관계 3.46	43. 영유아의 요구에 대한 반응적 태도	3.59	.59	8	34.6(8)	
	44. 적절한 신체적 접촉	3.38	.63	34		
	45. 부모-자녀간의 대화 횟수	3.41	.67	30	12.8(31)	
	46. 자녀 양육 철학 및 신념	3.44	.68	28	20.5(21)	
가족 및 가정 생활 3.31	가족구성원 과의 관계 3.03	47. 가족간의 모임 횟수	3.00	.72	58	
		48. 확대가족과의 관계 유지 정도	2.94	.65	60	
		49. 형제, 자매간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 지원	3.15	.65	51	
가족 해체 3.32	50. 부모의 악물남용 51. 부모의 질병 52. 가족내 스트레스 53. 영유아수 가정의 이혼 건수	3.09	.69	55		
		3.35	.64	42	20.5(22)	
		3.38	.69	35		
		3.45	.70	26	23.1(18)	
생활안정 3.37	54. 부모의 안정적인 직업 여부 55. 가정 경제생활의 만족도	3.37	.69	37		
		3.36	.70	41		
안전 3.44	안전사고 3.67	56. 안전사고 사상 영유아 비율	3.67	.60	3	37.2(7)
	학대 3.37	57. 영유아학대 신고수	3.32	.75	45	12.8(32)
		58. 영유아 학대 경험률	3.41	.67	31	17.9(25)
		59. 영유아학대 유형별 구성비	3.37	.77	38	23.1(19)
사회적 보호 3.53	빈곤 3.54	60. 영유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영유아 비율	3.69	.54	1	42.3(3)
		61. 무료 급식 지원 영유아 비율	3.37	.67	39	
	요보호 영유아 3.50	62. 요보호 영유아 발생 유형	3.55	.60	10	17.9(26)
		63. 요보호 영유아 보호유형	3.45	.80	27	
	장애 영유아 3.54	64. 치료서비스를 받는 장애영유아 비율	3.53	.73	17	12.8(33)
	65. 전문교육서비스를 받는 장애영유아 비율	3.55	.73	11	25.6(13)	

1) 4점 척도 적합성 조사결과 평균임.

2) 각 분야별(유아교육·보육 분야, 자녀양육 및 영유아복지 분야)지표 전체의 순위임.

3) 각 분야별((유아교육·보육 분야, 자녀양육 및 영유아복지 분야) 핵심지표(10개 선정)의 순위임.

IV. 한국의 육아지표 체계와 내용

150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 적합성 조사 결과를 참고하고, 연구팀간의 협의를 통하여 총 110개의 육아지표를 선정하였다. 즉, 한국의 육아지표는 기초지표 6개(표 4 참조),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 58개(표 5 참조), 자녀양육 및 영유아복지 분야 지표 46개(표 6 참조)로 구성되었다.

<표 4> 기초 지표

항목	지표
영유아 인구 및 양육현황	1. 합계출산율
	2. 0-5세 영유아 인구 비율
	3. 장애영유아 인구 비율
	4.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족의 형태별 비율
	5. 영유아의 양육형태
	6. 0-5세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

<표 5>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

항목	지표
기관현황	1. 유치원·보육시설 취원율
	2. 유치원·보육시설 설립유형별 기관 비율
	3. 국가수준의 기관평가(인증) 수임 기관 비율
	4. 종일반 운영 기관 비율(유)
	5. 종일반 참여 유아 비율(유)
교직원 및 종사자	6. 교원(종사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
	7. 교원(종사자)의 성별 구성 비율
	8. 교원(종사자)의 학력별 구성 비율
	9. 교원(종사자)의 자격별 구성 비율
	10. 교사의 경력별 구성 비율
	11. 교사 1인당 영유아수
	12. 교사의 연간 근무일수
	13. 교사의 1일 근무시간
	14. 교사의 연간 연수시간
	15. 최저 임금 대비 교사의 급여 수준
	16.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관 비율
	17. 교직원 보험(연금) 가입 기관 비율
	18. 퇴직금 지급 기관 비율
물리적 환경	19. 영유아 1인당 교사 면적
	20. 영유아 1인당 교실 면적
	21. 실외 놀이터 보유 기관 비율

(표 5 계속)

항목		지표
교육·보육 과정		22. 국가 수준의 교육·보육과정 활용 기관 비율 23. 교육·보육계획안 작성 기관 비율 24. 교육·보육과정 운영 자체평가 실시 기관 비율 25.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관 비율 26. 장애영유아 통합 교육·보육 실시 기관 비율
건강·안전		27. 연간 시설·설비 안전점검 횟수 28. 연간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 횟수 29. 연간 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횟수 30. 연간 안전사고 발생 건수 31.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기관 비율 32.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기관 비율 33. 질높은 급간식을 제공하는 기관 비율
부모교육		34. 부모교육·참여 실시 기관 비율 35. 운영위원회 구성 기관 비율
교육· 보육의 효과	영유아에 대한 효과	36. 신체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효과 인식 부모 비율 37. 언어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효과 인식 부모 비율 38. 인지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효과 인식 부모 비율 39. 정서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효과 인식 부모 비율 40. 사회성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효과 인식 부모 비율 41. 유치원·보육시설 경험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도
	교직원에 대한 효과	42. 근무에 만족하는 교사 비율 43.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교사 비율
	가정에 대한 효과	44. 유아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45. 교사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46. 기관장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47. 육아비용 지원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국가재정 투자 및 유아교육·보육 비용		48. 중앙정부 교육·여성가족 예산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49.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교육·보육 예산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50.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51. 유아교육·보육 관련 연구·개발비 52. 영유아 1인당 유아교육·보육 예산 53. 무상교육·보육비 수혜 영유아 비율 54. 차등교육·보육비 수혜 영유아 비율 55. 가정의 연간 영유아 1인당 유아교육·보육료 지출액 56. 가구소득 대비 연간 유아교육·보육비 지출 비율 57. 유아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모 부담 비율 58. 영유아 1인당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

<표 6> 자녀양육 및 영유아복지 분야 지표

항목		지표
기본현황		1. 영유아 신체 총질 지수→영유아 체질량 지수(BMI) 2. 장애 영유아 출현율 3. 영유아 사망률
건강 관리 및 보호	모자 보건	4. 모유수유율 5. 영유아 예방접종률 6. 영유아 정기검진율
	음식	7. 균형적인 영양의 식사제공→지방적정섭취인구비율(AMDR) 8. 식자재의 청결한 관리 및 보관
	주거	9. 주방기구의 청결한 관리 10. 전기안전 관리 11. 약품 및 유해물질의 안전한 보관
	의복	12. 의복 청결 관리
	개인 위생	13. 영유아의 신체 청결 관리 14. 영유아의 치아 관리
	질병 및 의료이용	15. 건강보험 보유 영유아 비율 16. 영유아 유병률 17. 영유아 의료이용 총족률
교육 및 생활 지도	교육	18. 정규기관 등록률 19. 자녀지도 교사와의 의사소통 여부 20.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횟수→시간 21. 자녀와의 놀이 시간 22. 자녀와의 현장 경험 및 문화체험 활동 횟수
	생활 지도	23. 식습관지도 24. 안전지도 25. 위생지도 26. 영유아의 발달 및 심리 이해 정도
가족 및 가정 생활	부부 관계	27. 부부간의 긍정적 관계 28. 결혼만족도
	부모- 자녀 관계	29. 영유아의 요구에 대한 반응적 태도 30. 적절한 신체적 접촉 31. 부모-자녀간의 대화 횟수→시간 32. 자녀 양육 철학 및 신념
	가족 해체	33. 부모의 질병 34. 가족내 스트레스 35. 영유아수 가정의 이혼 건수→한부모 가구 비율
	생활 안정	36. 부모의 안정적인 직업 여부 37. 가정 경제생활의 만족도
안전	안전사고	38. 안전사고 사상 영유아 비율
	학대	39. 영유아 학대 신고수 40. 영유아 학대 경험률→학대자 현황 41. 영유아학대 유형별 구성비
		빈곤
사회적 보호	요보호 영유아	43. 요보호 영유아 발생 유형 44. 요보호 영유아 보호유형
	장애 영유아	45. 치료서비스를 받는 장애영유아 비율 46. 전문교육서비스를 받는 장애영유아 비율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제도권하의 기관중심의 유아교육·보육 발전은 물론 부모의 자녀 양육과 영유아의 복지 측면을 포괄하는 한국의 육아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을 포함한 기초 지표 6개, 유치원·보육시설 이용율을 포함한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 58개, 모유수유율 등 자녀 양육 및 영유아복지 분야 지표 46개 총 110개의 육아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지표의 활발한 활용을 위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의 육아지표 지표값 산출 모형에 따라 매해 당해연도 실제 지표값을 산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지표값을 산출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자료원까지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매해 지표값을 산출해 봄으로써 한국의 육아 현황을 진단하고 가치와 목적에 비추어 현재의 도달 상태 및 발전 정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핵심지표의 지표값을 종합하고, 수치화하여 육아정책 지수 또는 육아지원 지수를 개발·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추진상의 제한으로 인해 지표값 산출에 이어, 지수 산출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지표값의 실제적인 변화를 반영해 주는 지수 산출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해 지표값의 변화에 따른 지수 변화를 가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연구기관 및 국가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조사를 위하여 표준화된 질문지 및 도구의 개발·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들은 대부분 시계열적인 자료의 축적과 활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의 특성과 지표값 산출을 위해서는 일시적, 일회적인 조사지의 사용보다는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지와 조사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발된 질문지와 도구를 지속적으로 고정하여 사용함으로써 변화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무섭 외(1988). 교육지표의 체계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나정·장명림(2001). 유아교육 지표 개발. 연구보고 RR 2001-3,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6). 한국의 아동지표.
- 이승희·백일우·김명순(2005). 한국아동보육사업의 경제적 규모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26(1), 183-202.
- 장명림·김창환·류명혜·이영미(2004). 2004 한국의 교육·인적자원 지표. 통계자료 SM 2004-9. 한국교육개발원.
- 정미라·친세영·신은수·문무경(2005). 유아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립(비전 2010). 정책연구과제 2005-13. 교육인적자원부.
- 통계청(2006). 한국의 사회 지표.
- 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연구.
- 한국아동권리학회(2001). 한국의 아동지표. 서울: 학지사.
- Campaign 2000(2002, 2003). Diversity or Dispar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Canada(ECEC). Community Indicators Project Report I, II.
- Child Welfare Services Practice Handbook, Illinoi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 Dunn, William. N.(1994). Public Policy Analysis. New Jersey: Prentice-Hall;
- Landy S, 2000, p 345.
- Friendly, M(2006). Quality by design: what do we know about quality in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and what do we think?. working document. Toronto: Child Resource and Research Unit, University of Toronto.
- Friendly, M., & Beach, J.(2005). Elements of a high quality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system.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 Friendly, M., & Beach, J.(2006). Quality by design: What do we know about quality in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and what do we think? A literature review..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 Nicholas Zill(2006). Are all indicators created equal? Alternatives to an equal weighing strategy in the construction of a composite index of child wellbeing. papers from the center on child and families

conference, Duke University.

Pivo, Gary & David Rose. (1991). Toward Growth Management Monitoring in Washington State. Olympia, WA: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UNESCO(2007). Strong Foundations: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Summary)

Unicef(2007). Child poverty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Report Card 7.

- 논문접수 2009년 11월 20일 / 수정본 접수 12월 23일 / 게재 승인 12월 28일
- 교신처: 장명림,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mlchang@kicce.re.kr

ABSTRACT

Developing Indicators for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Myunglim Chang
Jaeyeon Lee
Youngok Kim
Donghyun Ahn
Sooyeon Park

This study is aimed to establish the national goals and valu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and develop indicators for ECEC in accordance with those goals and values in order to mak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iagnosis of the current ECEC situation in Korea. For these purposes, in total, 110 indicators were developed in three domains: 6 for Basics, 58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46 for Parenting and Child Welfare. The indicators are expected to provide a useful guide for policy-makers and experts to analyze the reality and quality of the current ECEC of Korea and make informed decisions.

Key words: indicators for early childhood and care, indicators for parenting and child welfare